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전통시장 상인들 만나 ‘지지’ 호소

전통시장 나선 이 후보, 상인·시민과 끝없는 소통 행보
300여 곳 넘는 점포 방문해 눈도장... 상인 응원 이어져
“도시계획 전문가 이재준이 고충개선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강조

24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팔달문시장 일대를 돌며 상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집중 유세에 나섰다.

이날 아침 7시 출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전 9시 30분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

지난 18일 공식 선거활동 출정 이후 이날까지 강행군 일정을 소화한 이 후보였지만, 생계를 위해 매일 시장에 나서는 상인들을 마주한 그는 연신 미소를 띄며 “안녕하세요, 수원특례시장 후보 이재준입니다”라고 인사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4개동(채소12, 과일, 수산) 195여 개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에 귀 기울였다. 지난 2017년 시설현대화사업이 착공된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당초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여러 이유로 올해 7월 완공

을 앞두고 있다.

최영선(64) 소망수산 사장은 “시장 특성상 차량 이동량이 많은데,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관리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해 공사 중인 자리에 철골 주차장을 세워주셨으면 더 바랄게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일을 판매하는 그린유통 사장 강 모씨(50대)는 “현대화 사업한다며 해놓은 시멘트 바닥 공사가 제대로 안돼 분진이 날려 마스크 해제에도 벗질 못하고 힘들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말을 경청하던 이 후보는 “빠른 시일내 시장 정비·개선을 통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12시 30분쯤 수원남문패션시장~팔달문 시장 일대를 돌며 유세를 이어갔다.



왼쪽부터 24일 낮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시장 유세 중 한 시민을 만나 응원의 말을 전해 듣고 있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유세 활동 중 최영선(64) 소망수산 사장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김한별 기자

이 후보는 더운 날씨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면서도 길에서 만난 시민들과 상인들의 응원에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이 후보는 “장사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등 일상적인 대화로 물꼬를 트며 마치 오랜 이웃처럼 친근한 안부를 물었다.

40년간 한자리를 지킨 시계방 사장은 “첫째

도 주차, 둘째도 주차를 개선해 손님들이 오기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을 바꿔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이후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지만 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있다”며 “수원 전통시장 22개 중 주차장 있는 곳은 6군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시계획 전문가가 저 이재준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진흥회 같은 상인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현장에 나와보니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며 “시민들의 얘기를 가슴에 새기고, 시장이 되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한별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4일 제27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강현수 기자

임태희 교육감 후보 “조카 장애있어, 장애아·학부모 깊이 공감”

24일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참석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율 확대 등 약속

“장애 아동과 학부모님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도내 장애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확대하는 등 여러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4일 오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경기지장협) 주최로 열렸다. 휠체어경주, 탁구, 한궁 등 생활체육 경기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상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은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날이 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과의 비장애인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과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조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임 후보를 비롯해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 배우자 정우영씨, 용인시장 백근기·이상일 후보 등 6·1 지방선거 후보들이 참석했다. 임 후보는 행사 참석에 대해 “조카가 장애가 있어 늘 곁에서 어려움을 봐왔다”며 “장애 아동과 학부모님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소재 특수학교가 38개에 불과하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한편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율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강현수 기자

외국인 여성 고용 불법 성매매 일당 구속

외국인 여성들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경찰 “신종 불법 성매매 지속적 단속”

고양과 포천 일대에서 불법 채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고양 일대에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 경까지 약 7개월 동안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종업원 등 3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24일간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대대적인 단속·수사를 전개했다.

풍속수사팀은 “검거 과정에서 대포폰 4대, 영업장부가 담긴 외장하드, 보관중이던 현금 167만원 등을 압수해 피의자들의 추가 여죄를 확인했고 공범들도 추적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영업 수익금 4억여원을 특정해 기소 전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포천 일대 마사지 업소 내 다수의 불법채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의 고양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등 5명을 검거했다. 또 불법채류 외국인 여성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은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창규 기자

“
경기도의 참 언론사인
경기신문에서 독자 여러분의
참신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도
귀 기울이는 경기신문에 제보를 해주신다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신문 메인홈페이지 (www.kgnews.co.kr) 우측상단에 제보·투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더 빠른 제보가 가능합니다.

| 제보전화 | | 031) 268-8114 , 031) 257-4459 |

